

소환조사사흘 앞... 법정 증언으로 예상해 본 '이재명 vs 검찰'

남육 석방 직후 법정서 작심 발언 이어져 "김만배 '전화동인 1호 이재명 지분' 언급" 정민용 "유동규 지분" 서로 다른 증언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일당의 작심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육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내용과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캐물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대표를 겨냥한 듯한 대장동 일당의 법정 내 증언은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가 석방된 직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위례·대장동 사업 의혹을 넘어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이 검찰 수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육 "전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것 알아"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1일 진행된 대

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 증언했다. 전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200여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회사로, 일명 '그 분' 논란이 있는 곳이다.

그는 "전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 대표 측 지분이란 것을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며 "지난 2015년 1~2월부터는 전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 전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검도 많았다.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정진도 없었다. 솔직하게 말할 못 드린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이후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전화동인 1호는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엇갈린 증언을 했다. 이에 따라 전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가려내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민용 "이재명, '민간사업자 이익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데 공모가 흥행이 되겠나라고 말해'"

정 변호사도 지난 20일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015년 1~2월께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 이전 결과보고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 이익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데 공모가 흥행이 되겠나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측 변호인이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고 묻자 "맞다. 워딩 그대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얘기한 것을 유 전 본부장이 똑같이 말한 것 중 하나가 그것"이라고 답하며 '확정이익 지침을 비롯한 대장동 사업 설계가 이 대표의 의도라고 말했다'.

다만 확정이익 확보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대장동 사업 설계자가 맞다면 수도 공공환수액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확정 이익 방식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사업 이익을) 50대50으로 나누는 것이 확정이익 방

식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책적 결정사안이라고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남육 "선거 기간 중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 최소 4억원"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이 대표 측에 선거자금이 전달됐다고도 언급했다. 해당 금액은 2014년 위례 사업 당시 아파트 분양대행업자 이모씨로부터 받은 22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선거 기간에 이 당시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 된다"며 "이후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 나머지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선거자금으로 쓰이는 걸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씨로부터 받은 돈 중 김씨에게 전달한 돈은 12억원 전후"라며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뒷선인 '행들'에게 지급돼 선거자금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행들'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하지만 기소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모두 남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 의혹 또한 이 대표의 중요 수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김씨는 재판 과정 중 아직 피고인 신분 순서가 돌아오지 않아 법정에서 직접 증언한 바는 없다. 다만 두 사람은 법정 밖과 검찰 조사 등에서 이 대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옥설 옹호 여론 조성"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가 친형과 형수에게 옥설을 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유포되자,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을 시켜 이를 옹호하는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민간업자들을 통해 이 대표를 옹호하는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의혹은 대선자금이나 전화동인 1호 지분 관련 의혹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 간의 유착관계를 가능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지점도 이 대표 조사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이슬기자



부산 바다도 얼린 한파

부산지역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25일 남구 이기대공원 갯바위에 바닷물이 얼어 있다.

지난해 4분기 절도 범죄 급증...횡령 범죄 늘어

경찰 분기별 범죄통계...4분기 37만5493건 발생

지난해 4분기 절도 범죄가 1년 전에 비해 수천 건 가장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경찰청의 분기별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총 37만 5493건으로 전년도의 2021년 4분기(37만7324건)에 비해 1831건 감소했다.

이 기간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27만8629건,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74.2%로 전년도 73.2%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는 해당 기간 발생한 전체 사건 수, 검거건수는 해당기간 피의자를 붙잡은 사건을 말해 모집단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4분기 최소 약 10만 건은 아직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인 셈

이다. 작년 4분기 발생한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가 6542건,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가 6만3638건,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 범죄가 10만114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1년 전에 비해 늘어난 범죄는 절도 범죄로, 지난해 4분기 총 5만2403건이 발생해 1년 전(4만7164건)에 비해 523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능 범죄 가운데서는 횡령 범죄가 1만4856건에서 1만7090건으로 2234건 늘어났다. 지난해 4분기 범죄 유형별 검거율을 보면, 강력 범죄 검거율이 9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폭력 범죄(83.5%), 절도 범죄(53.9%), 지능 범죄(56.3%) 순으로 나타났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